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3월 1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5.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3. 14.(월)	담당부서	철강세라믹과
담당과장	이경훈 과장(044-203-4290)	담 당 자	조영제 서기관(044-203-4291)

산업부, 철강업계와 함께 안전대책 점검

- 3.15일(화), 철강업계 현장안전 강화방안 점검회의 개최 -

□ 3.15일(화)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와 국내 철강업계는 **철강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련 대응현황을 공유**하고, **강화방안에 대해 논의**하였다.

○ 금일 회의는 올해 중대재해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**철강 생산현장에서 안전사고**가 잇따르자,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< 철강업계 현장안전 강화방안 점검회의 개요 >

ㅇ일시・장소 : 3.15(화) 10:00-11:30, / 화상회의

ㅇ참석자 : (산업부) 소재융합정책관, 철강세라믹과장
(업계)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KG동부, 세아베스틸, 철강협회

ㅇ논의내용 : 철강업계의 안전 대응현황 점검, 개선방안 논의

□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KG동부, 세아베스틸 등 국내 대표 철강 업체들이 참여하여, 각 사별 **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**하였다.

○ 포스코 등 업계는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**사장 직속으로 격상**하고 **예산도 대폭 확대**하면서, **사고예방 측면**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전 직원 대상 **안전교육 강화**, 작업장 **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**, **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**, **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**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□ 다만,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강 생산현장에서 **다시 안전사고가 발생**함에 따라 **업계는 상황을 공유**하고 **함께 개선방안을 모색**하기 위한 **공동 대응체계**를 만들기로 하였다.

○ 이를 위해, 업체별 **안전관련 임원이 참여**하는 (가칭)**'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'를 신설**하고, 주기적으로 **안전관련 협의를 진행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특히, **중대재해의 90% 이상이 비일상 작업**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, 업계는 동 협의회에서 **다양한 작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**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

□ 이날 산업부는 **최고의 가치는 안전**이라며, **안전에 대한 투자**는 단순히 **'비용'이 아니라**,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**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'자산'**이라고 밝히며,

○ 업계에서는 **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**에 두고 **안전장치를 설계**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영제 서기관(☎ 044-203-42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